

문헌  
정보

# 그림비

그림비는 젊은이란 뜻의 순수 우리말입니다.

제 13 호

발행인: 한성대  
문헌정보학과  
학술 편집부

1996. 11. 18

문헌정보학과 학술편집부



## --- 목 차 ---

1. 낙산체전 종합3위의 영광을 96학번들에게 돌리며
2. 인터넷에서 받아보는 교육정보
3. 영문-나도 한마디
4. 졸업선배 현장탐사
5. 실습소감
6. 도서관 이용에 관한 설문결과
7. 구분별 교과과정 및 교과목 소개
8. 짧은글 속에 큰 지혜, 긴 여운
9. 시와 팝송
10. 유치하고 지루한 글
11. 문화행사 안내
12. 날말풀이
13. 주소록



## 낙산체전 종합 3위의 영광을 96학번들에게 돌리며...

해마다 열리던 낙산체전. 공사장을 방불케하는 학교분위기로 인해 올해의 귀추가 주목되던 가운데 어렵사리 10월 30일 낙산체전이 시작되어 11월 1일 노천극장에서 폐막식과 함께 그 힘겨운 일정이 끝이 났다. 낙산체전의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종목 : 농구, 족구, 배구, 발야구, 미니축구

☞ 다른 종목은 예전과 같았으나 자동차와 여러 건축자재들의 운동장 장악으로 인하여 전과는 다른 형식의 남녀 혼합 1조 5쌍씩의 미니축구가 민주광장에서 거행되었다.

● 예선기간 : 10월 21일 ~ 10월 29일

☞ 우리 과의 예선 일정

· 10월 23일. · 배구. : 무용.

→ 많은 연습에도 불구하고 무용과의 기권으로 기권勝.

⇒ 28일. : 회화.

→ 예전 우리 발야구의 터미네이터를 방불케하는 한 거포의 등장으로 set score 2 : 0 으로 탈락되었다.

· 10월 24일. : 농구. : 산업디자인.

→ 전반전에서 많이 뒤졌지만 후반전에서 많이 따라잡아 10point 정도의 차이로 탈락되었다. 전반전이 후반전만 같았으면 ...

※ 雨天 관계로 인해 원래 진행되기로 했던 발야구, 미니축구, 족구는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 10월 25일.

· 족구. : 정보전산학부.

→ 1, 2점의 근소한 차이로 set score 2 : 0 으로 탈락되었다.

· 발야구. : 경제.

→ 올해 발야구 우승과인 경제를 맞이하여 피나는 연습을 하였지만 우승과다운 면모 앞에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었다.

· 미니축구. : 정보전산학부.

→ 시합시간의 엄청난 초과로 인해 우리의 勝이 되었다.

⇒ 29일. : 산업안전공학과.

→ 전·후반전, 연장전까지에서도 1 : 1로 승부가 나지 않아 여자들만의 승부차기로 어려운 勝을 거두었다.

⇒ 11월 1일. : 산업디자인.

→ 雨天 관계로 인하여 체육관에서 진행되었고 2 : 1로 아깝게 패했다.

## 그림비를 발간하며

드디어 그림비가 신문형태에서 책자형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학술편집부의 미비한 점으로 지난 1학기에 그림비가 발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림비 제작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학술편집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림비의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 문헌정보학과를 대표할 수 있는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체전기간 : 10월 30일 ~ 11월 1일

· 10월 30일. 자주의 날.

→ 노천극장에서의 개막식 행사에 이어 운동장에서 민속놀이가 진행되었다.

남자씨름, 여자팔씨름, 제기차기, 남자팽이치기, 닭싸움, 널뛰기로 개인전으로 진행되었지만 접수는 과점수로 환원되었다.

→ 우리 과의 성적

- 제기차기 : 남자 1위 90 방승준 학우, 여자 1위 96 금교순 학우
- 남자씨름 : 3위 96 유승민 학우
- 널 뛰 기 : 3위 96 정후정, 노은미 학우

· 10월 31일. 민주의 날.

→ 발야구, 족구, 배구의 결승전이 진행되었고 단체경기로 단체줄넘기, 줄다리가 진행되었으며 낙산전사선발대회가 열렸다.

→ 단체줄넘기는 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33개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줄다리는 1차전에선 정보전산에게 2 : 1로 이겼지만 2차전에서 영문과에게 2 : 1로 패했다.

· 11월 1일. 민족대단결의 날.

→ 비가 오긴 했지만 모든 일정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 마라톤, 미니축구 결승

→ 마라톤은 범민족대회 이후 학생들 행사의 제재에 의해서 예전에 비해 짧은 코스로 진행되었다.

→ 미니축구의 결승은 우리과와 산디과의 시합으로 2 : 1로 패했다.

→ 폐막식에서 통일노래한마당이 펼쳐졌고 안치환씨의 공연이 이어진 후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민속놀이와 낙산전사선발대회의 개인전 시상식이 이루어졌고 낙산체전 종합시상이 있었다.

♣ 우리과는 종합 3위(자주상)를 해서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카세트를 받았다.

자동차와 건축자재들, 모래, 돌들로 가득차서 더더욱 좁아보이는 열악한 환경의 운동장 한 구석에서 경기가 진행되다보니 예전의 체전 분위기는 온데 간데 없고 따로따로 체전이 되고 말았다.

범민족대회의 여파로 인해 중학생회의 준비 부족도 있었지만 각 과 학생회장들의 회의 불참가로 인해 여러 가지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체전 기간동안의 여러 준비과정에 많은 자질이 있었다. 거기다가 날씨가마저도 흐린 날이 많아서 가득이나 적은 학우들의 참여도를 더 낮게 만들었다.

학우들의 낮은 참여도는 우리과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치 96학번들만의 작은 운동회를 하는 기분이었다. 경기시에 다른 학번, 학년들의 가열찬 응원과 함성이 있었기에 선수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힘을 얻을 수 있긴 했지만 경기 참여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안타깝기만 했다. 그들이 1학년때 느꼈던 선배들의 안 좋았던 모습들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듯... 하지만 96학번들의 전폭적인 참여로 인해, 그리고 민속놀이의 개인전에서 많은 좋은 성적을 내 주어서 종합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비오는 중에서도 많은 학우들이 마라톤을 뛰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폭제가 되었다. 그 역시 대부분 96학번들이긴 했지만 ...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전 구간을 完走하며 서로 부족해 주고 챙겨주면서 함께 뛰는 모습이 비와 땀에 범벅된 그 초췌했던 모습들을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게 했다. 너무 힘들었던 탓인지 마라톤 후 우리의 식사를 가지고 학회실로 들어오시는 승리장 아저씨가 그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었다. 아저씨를 반기는 아이들의 그 반가워하는 함성을 들으며, 그 힘들어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참된 아이들의 모습을 본 것 같아 마음속으로 한없는 고마움과 대견함을 느낄 수 있었다. 비속에서 많이 힘들어 하면서 뛰었고, 제대로 된 식당이 아니라 학회실에 그냥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대학생살에 있어서 하나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주일에 걸친 제전의 예선전과 결승전, 그리고 그 외의 많은 경기들을 지루하며 선수들이 모이고 연습하고 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그 때마다 열심히 애 주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기 때마다의 결과가 어땠든간에 그 경기를 준비하고 임하는 마음가짐과 준비과정만은 우리과가 종합 1위도 딸 수 있을만큼 충분했다고 본다. 그러기에 그런 마음가짐들이 종합 3위라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디딤들이 되었다고 본다.

경기연습과 시합관계로 인해 수업에도 많은 자질을 드렸지만 그 때마다 이해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 시합에 임했던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과 우리 과를 응원해 준 모든 학우들의 하나됨이 이번 낙산제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였다.

교수님들과 그 모든 학우들에게 낙산제전 종합 3위의 영광을 돌린다. 특히 가장 많은 수고를 했던 96학번 학우에게 이 영광을 ...

### 지금 이 순간 잠깐만 눈을 돌려 ...

“ 세상 사람 100명 중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10명 있다면 그 중 하나가 나이고 10명중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다면 하늘 아래 내가 존재하지 않음이지요.”

손 호호. 발 뚱뚱. 너무나도 추워지는 날씨.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좁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이 순간 잠깐만 눈을 돌려 서로를 바라보세요.  
 서로를 한 번만 따스하게 보아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한 번만 따스하게 들어주세요.  
 서로를 보아주고 들어주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작은 믿음들이 우리의 싸늘한 마음들을 따뜻하게, 엄마의 품 속처럼 아주 포근하게 감싸줄거예요.  
 자!!! 이제 나부터 한 번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94 유곽정

## 인터넷에서 받아보는 교육정보

### 일반교육정보=====

#### ● ERI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 <http://ericir.syr.edu/Eric/> 또는 <http://edrs.com/cgi-bin/askERIC> )

미국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최대의 데이터베이스이다. 종전에 DIALOG 등 상용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서비스되었던 것이 인터넷 웹상에서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교육관련 연구보고서를 수록한 Resources in Education (RIE) 과 각 분야의 교육전문가를 위한 700여개의 정기간행물 색인을 수록한 Current INdex to Journals in Education (CIJE)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초등교육, 조기 아동교육, 고등교육, 전문대교육, 성인/직업교육, 장애인 교육, 언어교육, 독서/의사소통기술 교육, 교사교육, 시험/평가, 수학/과학/환경교육, 사회과학교육, 도시/농촌교육, 교육관리 등 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부분 초록형태로 제공되고 원문은 EDRS (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s)에서 복사물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받아볼 수 있다.

#### ● K-12 ( <http://www.cs.fsu.edu/~durga/resources.html> )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K-12에 관련된 교육과정, 교육자료, 가상도서관, 소프트웨어들이 수록된 홈페이지들이 링크되어 있다.

#### ● 조선일보 KidNet ( <http://www.chosun.com/kidnet/> )

조선일보에서 어린이에게 정보화매체와 영어이키 익숙하게 하고록 인터넷을 학교에 보급하는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원방법 안내와 멀티미디어 학습관, 어린이를 위한 인터넷 사용법, 학교 홈페이지, 주제별로 인터넷 싸이트를 분류해 놓은 어린이 인터넷 지도 등을 제공한다.

#### ● 중앙일보 IIE ( <http://www.joongang.co.kr/iie/> )

중앙일보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 인터넷환경 구축을 지원하는 운동으로 참여방법 안내와 함께 인터넷 가상학교인 Virtual Academy도 개설되어 있다.



## 대학 교육 정보 =====

### ● 대학 사이트 링크페이지

( <http://www.yahoo.com/Education/Universities/>

또는 [http://a2z.lycos.com/College\\_Home\\_Pages/](http://a2z.lycos.com/College_Home_Pages/) )

인터넷에서 교육관련 사이트중 대학교 관련 사이트들이 가장 많다. Yahoo에서 국가별로 분류된 대학교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하거나 검색할 수 있다.

### ● Online Education ( <http://www.online.edu/> )

홍콩의 Online Education Limited사가 The University of Paisley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대학교교육서비스로서, Online Education사에서 제공하는 PC와 모뎀으로 교육센터에 접속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받아 학습할 수 있는 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도서 정보

### ● LIWEB (<http://sunsite.Berkeley.EDU/Libweb/>)

미국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캐나다 등에 있는 도서관을 모아 놓았다. 특히 미국에 있는 도서관은 대하그 공공 도서관 등으로 자세히 분류해 놓았다. gopher, telnet을 이용해서 다른 대학이 제공하는 도서관에도 접속할 수 있다.

### ● 경성대학교 도서관 (<http://kulis.kyungsung.ac.kr/search/alldb.html>)

경성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도서관 도서정보이다. 서명이나 저자명으로 검색하면 서지사항을 볼 수 있고 대출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 ● Amazon.com Books (<http://www.amazon.com>)

백만권이상의 책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on-line 상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다. 원하는 책을 작가, 책의 제목, 주제별로 찾을 수 있고 미국의 베스트셀러와 아마존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를 알아볼 수 있다.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와 그의 작품을 알아볼 수 있다.

### ● AwardWeb (<http://ivory.lm.com/~lmann/awards/awardweb.html>)

각종문학상을 받은 작가들의 리스트를 모아 놓은 사이트이다. 특히 science fiction awards가 많고 그외의 다른 무학 분야의 수상자도 모아 놓았다. 노벨의 홈페이지를 링크시켜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물론 다른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도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 ● BookStacks (<http://www.books.com/scripts/lib.exe>)

무료로 electronic book(evook)배포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이다. 제공되는 ebook 은 저작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작가, 제목, keyword ISBM을 사용해서 검색이 가능하다. 시와 소설, 비소설분야의 책을 on-line 상에서 읽을 수 있다.

### ● The Reading Room (<http://www.ipl.org/reading/>)

약 2천여 종의 타이틀을 갖고서 작가별 책의 제목 별로 분류해 놓았다. 그리고 책의 풀 텍스트를 볼 수 있는 많은 사이트를 링크시켜 놓아 인터넷에서 독서를 할 수 있다. 또 각국의 신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았으며 yahoo처럼 수 많은 사이트를 주제별로 정리해 책을 보면서 내용에 관련된 다른 사이트를 찾아 갈 수 있다.

### ● The Children's Literature Web Guide

(<http://www.ucalgary.ca/~dkbrown/index.html>)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소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만들어져서 우리와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어린이를 위하는 마음은 서양인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것이다. 어린이들이 지은 작품을 소개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와 노래를 실었다. 그리고 다른 아동문학에 대한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point社의 top 5% 에 속하며 상당히 유익한 사이트이다.

### ● BookWire (<http://www.bookwire.com/> )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DBMS, 네트워크 등 컴퓨터 관련 서적을 분야별로 검색할 수 있다. 소록내용 목차와 간단한 서평을 제공한다.



## <영문 - 나도 한마디>

### The English education in this land.

91' Kim Il-Hwan

Now, the favor of English is raging across the country. It seems to me that this trend affected by so-called globalization announcement by president Kim Young Sam is getting serious.

In work and university, English got to be one of things nobody could disregard. Especially, for almost all the whitecolor grade of TOEIC is one of parts playing a role in getting a promotion. And English for university student, whatever area they will go after graduation, as a important part in getting a job, is thought to be literally the must. A number of student tend to make much of English more than their major field of study. The number of student studying their major as only a kind of mean to get credits is remarkably increasing. And they invest most of the time in studying English. Besides, lo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and children under the age to enter the school are also getting involved in this outbreak. English private school for them is getting to be one of new paying business in this land, in spite of vitally higher school fee. In addition to that, a plenty of parents have their children take English course by native speakers at high price. In stepping with these atmosphere, the nation's government is said to make the subject of English one of the regular curriculums of the elementary school as well.

However, Is this action from the government the desirable

way for our future?

Everyone know the fact that today is the era of internalization, and it goes without saying that English as the common language of the world is a important part of capacities people living in the environment like this should have, whatever field they are engaging in. But now, I have a feeling that, the degree of the passion is going beyond the level of commonsense and the government is seemed to drive this atmosphere to the cliff. Recently. the English education favor the children under the age of schoollife are suffering has been a problem in the community.

Enthusiastic parents are buying expensive cassette tape for their children , getting them to learn English from native speaker at high cost and having them attend English private school. The government intend to make regular school curriculum comprise the subject of English. I'd like to consider these steps behavior pouring petroleum into the blaze. But, I think, it is not desirable evidently.

According to a latest survey conducted by a local research institute, in the case of korea, the time allotted for mother languag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are less than that of other countries.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the reading ability and the capacity to make a composition in korean the nation's little student have is inferior, the study said. Considering these things, I suppose this action our government is about to take is not nice way for our country.

The problem in English education for students growing up here is not when they start English but how they learn English. The excessive grammar-oriented education and the way to teach for entrance examination are responsibility for the situation that our student after 6year English learning



cannot even open their mouth in the presence of foreigner. Therefore the English education in school should be changed in more practical way. In terms of glottalization policy our government is screaming, it is the right way. It would be better to increase times for mother tongue in elementary school's time table than to make the subject of English part of regular curriculum.

I also have been studying English in private English school like a lot of buddies. There is a fact that I feel studying English. As far as someone was not born in a country using English as the native language, the ability to speak and write in their mother tongue and letter fluently should be ahead of learning another language including English. We are likely to be able to complete the task to com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ctively only after we have the perfect korean thought and the enough understanding of ours.

## -- 졸업 선배 현장 탐사 --

맑은 가을 하늘, 가을 바람, 가을 나뭇잎들,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은 취업에 대한 걱정에 싸여 있는 건 아닌지... 가을 바람만큼 차갑게 불어온 명예퇴직의 바람덕(?)에 공무원 시험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는 듯 합니다.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여성 인력이 남성 인력에 비해 경시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철저하게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 비록 군필자에게 가산점이 있지만- 채용하며,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등이 공무원의 박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인기를 유지해 주는 비결일 겁니다. 물론 전공자에 비해 사서의 수요가 턱없이 부족한 현상에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정된 일터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공무원 시험의 매력이 될 수 있겠지요.

사서직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님들을 위해 다소 지루할 지도 모르나 제 근무처인 국회도서관의 사서직 채용방식에 대해 적어보기로 하지요.

공식적으로는 2년 간격으로 시험이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그 기간은 일정치 않습니다. 7급은 국어, 영어, 국사, 헌법, 정보학, 도서관경영론을 필수과목, 참고봉사론, 자료조직법,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중 한과목을 선택과목으로하여 총 7개과목 입니다.

9급은 국어, 영어, 국사, 자료조직법, 정보학의 5개 과목입니다. 이는 1995년 7월 31일 개정된 국회 공무원 임용 시험 규정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국민윤리를 비롯한 교양과목이 삭제되고 전공과목이 보충된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한창 논란이 되고 있던 군필자 가산점은 7급은 1.5~3%, 9급 국가고시직은 2~4%, 9급 지방직은 현행대로 두는 안이 1994년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또 최근 공무원 채용시 여성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나, 여성을 일정비율 채용하는 할당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점점 여성의 공무원 진출이 확



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더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수험서 등을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있어서 과목수가 줄고 암기과목이 전공 과목으로 바뀌었다 해도 시험과목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을 위해 상당한 기한을 투자해야 합니다. 주변의 경우 6개월 내재 1년정도 공부했다고들 하는데, 이는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해 온 경우가 아닙니다. 시험 하나만을 목표로 여러 달을 공부만 해야 하는데, 시험 준비 기간은 매우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 가지의 차선책을 마련해 두고 공부를 시작한다면 그 과정이 더욱 힘들게 여겨질 겁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를 정하는 것, 그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도서관 근무 1년이 채 안된 저로서는 실제 사회생활이나 사서직의 전반적인 모습은 말하기가 어렵군요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사서업무가 신나고 재미있는 작업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규모가 큰 도서관의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세분되어 있어 한 부서에서 담당업무를 반복해서 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일에 쉽게 싫증을 느끼는 사람은 더욱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생산하고 축적한 자료가 이용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때 느끼는 기쁨 또한 큼니다.

그러나, 아직 외부의 시선은 '사서'란 직업을 가진 이들에 대해 따듯하지 않습니다. 그들 - 열람자나 사서를 관망하는 이들-은 열람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는 사서의 모습만을 보아왔고, 그 이상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외부인에게 사서란 단지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혀 도서나 하는 사람일뿐입니다. 별로 중요치 않은 일을 하는,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바쁘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 이것이 대중에게 보여지고 알려진 사서의 모습이란 것은 짧은 기간이지만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배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일선에서 나태함을 보이는 사서직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도서관인들의 모습은 아니며, 많은 노력이 도서관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커다란 공간에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 놓았다고 해서 좋은 도서관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도서관에 있어서 사서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접한 기사는 거의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시립도서관인 우라야스 도서관의 연간 도서구입비가 80억원이 넘는 데 비해, 우리나라 전체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비는 고작 40억원입니다. 그런데도 월드컵 유치에 위해 그 돈마저 삭제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사서로 근무하게 될 터이니, 도서관의 열악한 환경은 물론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뚜렷한 직업의식을 가진 멋진 사서가 여러분 중에서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보편적인 말일지는 모르나 명확한 목표를 가진다면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십시오. 어느 분야에서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 실습소감

## 국회도서관

아직은 쌀쌀한 날씨에 갖춰진 정장을 입고 어색하게 지어진 밝은 표정을 유지하면서, 학교가 아닌 장소에서 학생이 될 때 느끼는 해방감 같은 것을 가지고 국회도서관에 갔다. 그 시간의 어느 빌딩도시에서 그렇듯 바쁘게 움직이는 많은 직장인들을 보면서 실감하는 4학년의 취업현실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거대한 조직의 위엄을 드러내듯 서 있는 국회의사당과 우리 학교도서관의 몇 배가 되는 도서관의 건물을 보면서 약간의 흥분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내가 이 조직의 일원이 된 듯한 느낌이 아마 흥분의 원인이었으리라.

도서관 협력 과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4년을 기다린 3주간의 실습은 시작되었다. 도서관의 움직임을 느끼기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보다 큰 시각에서 도서관을 볼 수 있는 기간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 해방감으로 풀렸던 마음을 긴장하게 하였다.

학년마다 무엇을 들을까 심혈을 기울여 선택했던 과목들이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는 시간들이었고, 정적인 모습의 도서관이 동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많은 반성들도 생겼다. 그리고 무엇을 현장과 학교에서 절충해야 하는 지 알 수 있었다. 이 점은 실습을 하는 동안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이 되었고 나를 분석하는데 척도가 되었다.

매번 하는 나이 어린 자의 한숨 즉, 후회이겠지만 실습을 통해서 느끼는 깨달음이다.

첫째는 전공과목은 많이 들수록 좋다는 것이다. 무엇을 들으면 점수가 좋을까, 무엇을 들으면 편히 들을 수 있을까 하는 타산을 따질 만큼 과목이 많지 않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이 무너짐의 위험을 가지고 있듯 전공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지 않으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생각도 부실해서 일에 대한 회의도 빨리 오고 나아가 안일한 사회원이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들은 것이 많으면 아는 것이 많다는 말이 좀 무리가 있겠지만 발전적인 사고나 확산적인 사고에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교수님이나 선배는 가까울수록 좋다는 것이다. 강의 시간에 듣지 못했던 길을 안내해주실 것이다. 알지 못해서 가지 못할 뿐이지 좋은 길, 편한 길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수님도 귀찮게 하는 제자를 귀여워 할 것이다.

매년 졸업하는 선배들이 40명정도 인데 그 사람들 모두가 같은 생각으로 같은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그들을 보면서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가를 느낄 수 있다. 셋째는 열심히 하는 자세이다. 이 말은 너무도 당연해서 간과하기 쉬운 말이지만 실현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말이다. 실습생은 학교의 대표이다. 배우려는 자세,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려는 자세, 찾아서 일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무조건 비판하려는 자세는 열심히 하는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 역시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선배들을 둔덕에 편안하게 실습을 할 수가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 지 모른다. 나 역시 그런 선배가 되기 위해서 취업이 잘 되어야 할 텐데.....

93학번 임 유 리(96년 4월 어느날)



# 도서관 이용에 관한 설문지-- 결과

설문지 100부 배포 --회수 87부--부적격4부를 제외한 83부의 결과

대상: 1996년 10월 4일-- 4층 도서관 열람실 이용자,  
3층 이용자 (연간물실 및 열람자)

( )--> 응답건수

- 당신이 원하는 자료를 본인 스스로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A. 직원(사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1) B. 찾기를 포기한다. (26)  
C. 다른 도서관으로 찾아간다 (13) D 기타(친구나 선배의 도움2건)
- 당신이 원하는 자료가 우리 도서관에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A. 사서에게 그 자료의 위치(타대학 도서관)를 문의한다(10)  
B. 타대학 친구를 통해 소장 여부를 알아본다(18)  
C. 무작정 큰 도서관(국립, 연대...)으로 찾아간다. (33)  
D. 포기한다. (10) E. 기타(대형서점이용-6건, 유사한 다른자료이용, 당연한 것으로여기고 포기)
- 사서에게 문의하는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사서의 업무가 바빠 보여서 물어 보기 미안하다. (18)  
B. 물어 보아도 응답을 해줄 것 같지 않다. (18)  
C. 사서의 업무에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몰랐다. (20)  
D. 사서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서 물어 보지 못했다. ( 2)  
E. 기타( 물어봐도 도움이 될것같지 않아서-4건 )
- 당신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얼마나 자주 사서의 도움을 이용하십니까?  
A. 궁금한 점이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도움을 청한다. (5)  
B. 혼자 자료를 찾다가 힘들다고 판단될 때 도움을 청한다. (46)  
C. 혼자 힘으로 안되면 아예 포기해 버린다 (28)
- 질문을 했을 때 직원(사서)이 당신에게 취한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A. 매우 친절하게 대답을 해준다. (2) B. 비교적 친절하게 대답을 해준다. (38)  
C. 그저 그렇다(35) D. 비교적 불친절하게 대한다. (4) E. 매우 불친절하다(1)

- 당신이 사서에게 도움을 요청 할 때 어떤 유형의 질문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해당사항에 모두 V 표 해주십시오.  
A. 즉답형 참고질문-- ex)이승만 대통령의 취임 연도는? (2)  
B. 서지확인서비스--(불완전한 서지사항을 가지고 자료를 찾고자 할 때) (32)  
C. 소재 지시형 질문--(찾고자 하는 책의 도서관내 위치에 대한 질문) (58)  
D. 우리 도서관에 없는 자료에 대한 타도서관의 소장 여부 파악 (3)
- 우리 도서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십니까?  
--자료부족: 40  
--정리가 안되었다: 9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 9  
--신간서적 부족 : 9  
--좌석수가 적다(규모가 적다) : 6  
--소장자료와 전산처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 2  
--논문집, 전공자료부족 : 2  
--전문분야 신간도서구입이 늦다(회계기준이 바뀌었음에도 개정회계로서는 찾을 수가 없다)  
--사서의 역할에 대한 홍보  
--학생중 검사제도 폐지(귀찮고, 무용지물)-검색기 도입  
--소음(구두소리)--바닥에 카페트를 깔자  
--꽃밭만들지 말고 새책이나 한권더 사자



전공 교과목 안내

전공 기초	개설학기	담당 교수
문헌정보학개론	1 / 1	정진식
정보사회와 뉴미디어	1 / 1	조인숙
도서관문화사	1 / 1	강순애
도서관경영론	1 / 2	이응남
전공 필수	개설학기	담당 교수
장서개발론	1 / 2	서은경
자료분류론	2 / 1	이우범
자료편목론	2 / 2	정진식
도서관전산화론	3 / 1	조인숙
정보검색론	3 / 2	이우범
전공 선택	개설학기	담당 교수
정보커뮤니케이션론	1 / 2	정진식
독서교육론	1 / 2	강순애
과학기술정보	2 / 1	이우범
참고정보론	2 / 1	정진식
컴퓨터정보처리론	2 / 1	서은경
서지학	2 / 1	강순애
공공도서관론	2 / 1	이응남
정보관리론	2 / 2	이우범
미디어제작론	2 / 2	조인숙
도서관정보네트워크	2 / 2	서은경
한서강독	2 / 2	강순애
인문사회과학정보	2 / 2	강순애
색인초록론	3 / 1	이우범
자료조직연습	3 / 1	정진식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론	3 / 1	서은경
고전자료조직론	3 / 1	강순애
정보시스템분석론	3 / 2	이우범
정보처리연습	3 / 2	조인숙
대학도서관론	3 / 2	조인숙
연속간행물관리	3 / 2	서은경
동양서지	3 / 2	강순애
정보센터론	4 / 1	조인숙
정보이용자연구	4 / 1	서은경
비도서자료조직론	4 / 2	정진식
데이터베이스이용론	4 / 2	조인숙

교과목소개 -- 전공선택

D151203 참고정보론

참고정보업무의 이론을 중심으로 봉사의 목적과 기능, 계획, 조직, 조사 및 정보이용 질의에 대한 탐색방법을 연구 분석한다.

D151118 자료조직연습

분류의 원칙과 편목이론을 재정립시키고 실무에서 적용되어지는 문제 해결의 능력배양을 위하여 표준화된 목록규칙과 분류원칙을 습득시키며, 특히 LCC를 중점 강의한다.

D151119 서지학

한국 및 동양 자료의 판종과 간행·필사시기를 고증하고, 선본 여부를 식별하는 이론과 실제를 교육시켜 전통 자료의 평가선택, 분류목록 및 문헌정보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부여한다.

D151233 과학기술정보

과학기술정보의 이론 및 연구개발에서의 기술정보의 이용문제를 연구하고 정보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과학기술정보매체를 개관하며, 각 매체별 중요정보원에 대한 지식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D151245 독서교육론

독서교육의 이론과 현장 지도에 보탬이 되도록 독서의 개관, 독서교육의 개념, 계획, 방법, 독서자료, 독서교육 프로그램, 독서교육평가등을 다루어 독서교육이 이론에 바탕을 둔 생활지도로서의 장이 되게 한다.

D151234 정보커뮤니케이션론

개인을 현실의 구체적인 사회적 과정에 도입시켜 사회적 인간으로 활동케 하는 기초적 과정인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으로 이해시키며 사회구성원간의 지식, 정보, 의견 등을 공유화 시키는 행동과정을 분석한다.



#### D151108 컴퓨터정보처리론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도서관업무 및 일반업무를 수행할 때 생성되는 정보를 처리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이용법을 습득시킨다.

#### D151120 미디어제작론

정보수록매체가 다양화됨에 따라 정보매체 활용에 대한 기초지식이 요구되고 있어 각종 미디어의 제작과정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통하여 효과적인 정보봉사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둔다.

#### D151244 한서강독

한국 및 동양 고전 자료의 선정, 수집 및 정리에 있어서 선본 식별과 자료의 서지사항을 찾아낼 수 있도록 원본의 이해와 실제를 강독을 통하여 교육시킨다.

#### D151122 공공도서관론

공공도서관 봉사의 기반구축 단계로서 이념과 본질, 행정의 문제를 검토한 후 공공도서관 고유의 봉사활동을 직접봉사(공중봉사)와 간접봉사(기술봉사)의 영역으로 나누어 효율적인 운영방안 모색한다.

#### D151229 색인초록론

정보가공매체로서의 색인초록의 이론, 작성방법의 연구 및 세계 주요 색인지, 초록지 등의 구조를 조사, 분석하여 정보자료처리 가공 능력 육성에 중점을 두어 교육함으로써 이상적인 색인 또는 초록을 설계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로서의 소양과 지식을 배양하고자 한다.

#### D151225 인문사회과학정보

인문·사회과학분야 자료의 평가선택, 분류목록 및 문헌정보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문·사회과학의 각 주제 분야별로 학문의 성립, 전개 또는 발전, 특징을 비롯하여 각종 참고자료 및 서지자료의 특성과 이용법을 교육한다.

#### D151123 연속간행물관리

새로운 정보원으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연속간행물의 특성과 유통문제를 검토하고, 연속간행물의 효율적인 수집, 이용 및 관리통제 방안을 연구한다.

#### D151126 도서관정보네트워크

도서관정보네트워크를 구성, 이해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통신기술 및 방식과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고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내의 도서관 네트워크의 사례를 검토하여 도서관정보네트워크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응용력을 증진시킨다.

#### D151256 대학도서관론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다루며, 이용자에 대한 전문서비스 내용을 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대학도서관의 모델과 운영기법을 익힌다.

#### D151256 정보처리연습

도서관업무의 자동화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패키지 이용법 및 정보처리 방법 등을 실습을 통하여 중점적으로 다룬다.

#### D151240 고전자료조직론

동양의 고전자료에 대한 특성을 강설하고 고서분류의 개념 및 범위, 사부분류법과 한국십진분류법을 비교하여 고서를 분류하는 이론과 실제를 강독하며, 고서목록은 국제서지기술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그에 따라 조직하는 법, 그리고 적용이 어려운 것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조직하는 법의 이론과 실제를 강독한다.

#### D151127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론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요소를 다루고, 초등, 중등 및 고등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의 현 위치를 분석한다.



### D151237 비도서자료조직론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시청각자료, 화일자료 등 학술정보미디어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며 이를 수집, 처리, 평가하여 실무적용시 구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연구한다.

### D151128 데이터베이스이용론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의 구성과 내용을 파악하고 온라인 및 CD-ROM 검색 방법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D151239 정보시스템분석론

정보시스템의 구조, 원리, 설계방법에 관한 이론 및 응용을 연구하며 국내외 주요 정보시스템의 구조분석 및 운영평가를 통한 정보시스템모델 설계 및 평가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D151260 정보센터론

최신정보의 요구에 따른 신속한 정보유통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정보센터 및 전문연구도서관의 운영체계와 정보관리기법을 사례를 중심으로 다룬다.

### D151261 동양서지

한국과 중국의 고전자료를 다양하게 엮은 고금의 각종 서목에 대하여 그 개요 및 특성, 목록체계 및 분류방법 그리고 각 주제 및 류별로 중요한 문헌을 들어 동양자료의 평가선택, 분류목록, 서지정보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정보관리론 (신규개설)

기업체에서의 정보조직, 관리, 운영, 이용 및 정보조사방법 등을 연구하며, 국내외의 주요 정보관리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한 이상적인 정보관리시스템 구현에 중점을 둔다.

### 정보이용자연구론(신규개설)

정보이용자의 정보추구 및 정보이용의 행태를 분석하는 기법인 이용자연구방법론에 대한 기초개념을 소개하고 주로 행해지고 있는 연구방법과 분석방법을 설명한 후, 실제 이용자연구를 실행한다.

## ★ 짧은 글속에 큰 지혜, 긴 여운

### 《큰 지혜》

※이럴땐 이렇게 하세요.

#### ▶ 감정이 이럴땐...

- ♣ 자신의 존재가 작고 초라하게 생각되어 질 때면 모형 지구본을 돌려보세요. 세상의 중심이 자신이라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어 할 때는 카사블랑카꽃과 함께 '힘내세요'하고 말해주세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 ♣ 우울할 때는 가장 먼 거리를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거리를 둘러 보세요.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 ▶ 생활속에서 이럴땐...

- ♣ 창틀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물에 적신 신문지를 유리에 붙인 다음 칠하면 유리에 페인트가 묻지 않습니다.
- ♣ 다림질에 옷이 늘어 누렇게 되었을때 양파즙으로 문지르면 감쪽같이 깨끗해 집니다.
- ♣ 운동이나 힘든 일을 하고 난 후 무릎이 아프다고 바로 두드리면 관절염의 원인이 됩니다. 두드리는 대신 무릎 전체를 팔로 감싸고 눌러 주십시오. 한결 시원해 집니다.

### ※토픽

♣ 미국의 크레이 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큰 소수였던 25만 8천 7백 16 자릿수보다 더 큰 소수인 37만 8천 6백 32자릿수를 슈퍼컴퓨터를 통해 발견했다고 최근 발표했는데 이 소수를 한번 적는데는 신문 12면이 필요하다고 했다.

♣ 신문지 한장을 50번 접으면? :신문지 한장을 반으로 접고, 또 그것을 반으로 접고 ... 이렇게 반으로 접기를 50번 계속한다면 그 두께는 얼마나 될까? 신문지 한장의 두께를 약 0.1mm라고 생각해 보면  $2^{50}$ 의 계산으로 약 112,590,000km 라는 큰 값이 나온다. 이 거리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약 2/3정도나 되는 먼 거리이다.



### ※'사리'가 일본말일까?

♣ 흔히 일본어로 잘못알고 있는 '사리'는 순수한 우리말로 '사리다'에서 나온 말이다. 국수나 새끼, 실 같은 것을 흩어지지 않게 둥그렇게 포개어 감은 문치를 가리켜 '사리'라고 한다. '몸을 사리다.'로 쓰일 때는 어렵거나 힘든일은 살살 피하며 몸을 아낀다는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인다.

### ※커피를 마시기 전에..

♣ 프랑스 요리의 풀코스는 정찬의 본요리가 끝나면 디저트 전에 치즈가 나온 다음 커피가 나오는데 이것은 커피가 위벽을 손상시키고 피부를 거칠게 하는 나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카페인에 의한 위벽의 손상을 비타민 A의 섭취로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비타민 A로는 당근, 시금치등의 녹황색 야채와 버티나 치즈 같은 유제품에 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커피에 밀크를 넣는 것은 맛을 부드럽게 할 뿐아니라 위에도 좋다.

### 《긴 여운》

#### ※이정하씨의 “내가 만약 한 가슴을 달랠수 있다면”중에서...

▶가을이었다. 그 절 주변은 온통 단풍으로 물들고 그 잎새 사이로 투명한 햇살이 화살처럼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 지는 기억이 희미하나 물끄러미 단풍을 올려다보시던 노스님과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 때 노스님이 빙그레 웃으시며 내게 이런말을 던져 주었다. “애야, 넌 단풍잎이 왜 빨갛게 물든다고 생각하니?” 물론 내가 그 대답을 할 수 있을리가 없었다. 설사 알고 있다해도 말할수 없는 어떤 엄숙함이 그 노스님에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건 말이지, 마지막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끝맺으려는 자연의 뜻이란다. 마치 하루를 마감할때의 저녁놀이처럼 말이다.”

### ※홍정숙씨의 “7막7장”중에서...

▶추억이란 돌아올수 없기에 아름답다. 그리고 항상 불완전하기에 애뜻하다. 과거를 사랑하여 미래를 잊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나 오늘을 아쉬워하지 않고서는 내일 추억을 견뎌낼수 없을지 모른다. 오늘, 오늘을 충분히 그리워하면 내일, 오늘이 덜 그리울수 있지 않을까?

### ※박완서의 “산과 나무를 위한 사랑법”중에서...

▶밤의 비밀은 따끔따끔한 밤송이와 두껍고, 뽀들뽀들한 걸쭉질과 퉁은 속껍질 속에 숨어 있는 달콤하고 고소하고 오돌도돌한 밤알의 맛입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몇겹의 난관을 뚫고 제일 처음으로 밤알의 맛을 보게 하였을까요? 몽둥이와 돌맹이였을거라고요? 꼬챙이였을어라고요? 아니, 원시인의 억센 이빨이었을거라고요? 아니 아니 그 일은 원시인의 뾰족한 손톱과 발톱 아니면 안되었을거라고요? 다 옳은 소리입니다. 그러나 몽둥이나 돌맹이, 이빨이나 손톱이 제일 처음의 것은 아닙니다. 제일 처음의 것은 사람들의 꿈이었다고 저 험악하게 생긴것 속에 어찌면 가장 맛있는 것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9525013 박영혜



## 시와 판송

### 바다와 나비

(김기림)

아무도 그에게 수심(水深)을 일러 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靑)무 발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公主)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삼월(三月)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주제: 냉혹한 현실에 의한 낭만적 순수성의 좌절

구성: 1연-현실을 모르는 순수한 존재

2연-냉혹한 현실과의 만남에 의한 좌절

3연-냉혹한 현실 속에서 좌절된 나비의 연약한 모습

내용: 한 인간이 지녔던 순수하고 소박한 낭만적 이상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여지 없이 좌절당하고 왜소화하는 과정을,  
나비와 바다의 이미지를 빌려 형상화한 시이다.

## What's Up

*Sung by 4 Non Blondes*

25 years of my life and still  
I'm trying to get up that great big hill  
Of hope for a destination  
I realized quickly when I knew I should  
That the world was made up of this  
Brotherhood of man, for whatever that means

And so I cry sometimes when I'm lying in bed  
To get it all out what's in my head  
Then I start feeling a little peculiar  
So I wake in the morning and I step outside  
I take a deep breath then I get real high  
Then I scream from the top of my lungs  
What's goin' on And I say hey...etc  
And I said hey what's goin' on  
And I say hey...etc.  
I said hey what's goin' on



I try, oh my God do I try  
I try all the time  
In this institution  
And I pray, oh my God do I pray  
I pray every single day  
For a revolution

---

##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4 년 블론즈

나이 25살에 나는 아직도  
인생의 의미는 못 찾고  
험준한 희망의 언덕을 넘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내가 그리는 이상을 생각해 보니  
그것은 인류애로 이루어진 세상임을 깨달았지요  
그런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때론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려요  
머리 속의 복잡한 생각들을 털어 버리고 싶을 때  
그러면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 때 목소리를 다하여 외칩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이봐요, 내 말을 들어 주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봐요, 내 말을 들어 주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노력하고 있어요, 맹세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요, 나의 꿈을 간직하려고  
이 미친 사회 속에서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요, 맹세코 얼마나 기도를 드리는지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 세상이 올바르게 되기를

- \* *great big hill of hope* :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희망과 용기를 얻는 과정을 험준한 언덕을 넘어서는 것에 비유
- \* *know one should* : ~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다
- \* *be made up of* : ~으로 구성되다
- \* *brotherhood of man* : 인류애, 사해동포심  
(=brotherhood of mankind)
- \* *get~all out* : ~을 모두 빼내다, 털어내다
- \* *get high* : (마약, 술 따위에) 취하다
- \* *at the top of one's lungs* : 목청껏
- \* *goin' on(=going on)* : ~일이 일어나다
- \* *institution* : 제도, 조직, 단체
- \* *revolution* : 혁명, 급격한 변화



## 여자! 여자! 여자?

나는 이 글을 통해 여자에 대해 궁금한 것을 밝히고 나아가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며 앞으로 다가올 여성상위시대를 대비하여 남성들의 지위향상에 힘쓸 것이다.

먼저 여자의 생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자. 여자는 어디에서 태어나 어디로 가는가! 구약성서에 의하면 하나님은 온갖 생물을 만드신 뒤 드디어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 즉, 우리를 만들어 땅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 몇 일 뒤에 우리가 밤에 심심함을 아시고 우리 갈빗대 한쪽을 때고 살을 붙여 여자를 만드셨다. 이 성서에도 말하듯이 여자들은 우리의 분신이자 우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마구 설치며 날뛰고 있다. 물론 몇몇은 예외지만. (우리엄마, 내 xx)

최근 여성상위시대가 몰려오는 듯한 감이 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모든 최종 결정권을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와 여자의 생활이 뒤바뀐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체면은 땅에 떨어지고 자식들도 우리보다 여자를 따를 것이며 동물들까지 (특히 개) 우리를 우습게 볼 것이다. 우리의 몸의 일부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괴롭힌다면 모든 생물의 지배자인 남자로서 우리는 신이 주신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 없다. 지나가던 개도 웃을 것이다. 절대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세상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자를 이길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다.

첫째, 우리는 힘을 길러야 한다. '체력은 국력'이란 표어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힘은 중요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자는 힘이 없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자들은 끊임없이 힘을 기르고 있다. 여자들은 하루종일 먹어대기는 하지만 힘을 쓰는 일은 조금도 하려 하지 않아 가슴이 튀어나오고 엉덩이에 살이 올라 거기에 힘을 축적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힘을 낭비하고 있다. 농구하고 축구하고 특히 우리는 밤에 더 많은 힘(=에너지)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선 안된다. 우리도 힘을 기르자. 힘을 절약하자. 우리도 노력만 하면 여자를 누를 수 있다. 밤에 쓸것 안쓰고..... 우리는 군대를 통해 더욱 강

력한 힘을 키울 수 있다. 그곳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체력을 단련하고 군사 훈련까지 한다. 우리가 여자를 압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다.

둘째, 체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력 또한 중요하다. 오늘날은 최첨단 산업 사회이다. "지식 없이는 살아 갈 수 없게끔 모든 산업 체계가 발달되어 있다"고 엘빈토플러가 제3물결(THE THIRD W-AVE)에서 그렇게 말했다. 아무튼 여자가 머리가 더 좋다고 말하기도 하나 사실 우리의 뇌는 여자보다 더 잘 발달되어 있다. 여자의 평균 뇌용량은 1488cc인데 비해 우리는 1512cc이다. (그래서 우리 현대 인류의 평균 뇌용량은 1500cc이다.) 뇌가 24cc이면 뇌세포가 수천억개도 더 들어 있다. 그리고 여자 몸에는 적혈구가 450만개 들어 있는데 비해 우리 몸에는 500만개가 들어 있다. 그래서 우리 남자의 피가 더욱 붉게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적혈구 속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색소 단백질이 들어 있어 이 물질이 산소를 운반한다. 우리는 우리 몸에 산소가 모자라면 식욕이 떨어지고 발육이 부진하며 혈당 농도가 높아져 고혈압이 되어 빈혈이 일어나며 병의 저항력이 감퇴되고 머리 회전이 느려진다. 우리와 여자의 평균키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적혈구의 수 차이 때문이다. 만약 키가 작아서 고민이 있는 사람은 산소를 많이 들이킬 수 있는 산으로 가라. 산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키도 큰 것은 맑은 공기 특히 산소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여자를 눌러야 한다는 정신력 또한 중요하다. 이겨야 한다는 투철한 정신력이 없다면 지고 만다. 투철한 정신력은 과연 어떻게 키우는가?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 집에서는 아들에게, 중고등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교련이나 윤리 시간을 이용해서 정신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남성의 여성 전략이나 남성의 여성 통제법 전술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전략이나 전술은 다음 회지에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넷째, 여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국지연의에서 여포와 동탁이 기녀 초선에게 속아 망한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삼국지연의를 한번이라도 안 읽어 본 사람은 이 글을 읽을 자격이 없으며 남자로서 자격이 없다. 물론 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을 믿는다. 아무튼 여자의 간교한 속임수는 날로 발전을 거듭하여 더욱 고도화되고 더욱 새로워졌다. 그만큼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끝으로 우리 남성끼리는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여야 한다. 아무리 체력이 있고 지력을 겸비하고 여자를 이겨야 한다는 투철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고 유혹을 당해도 꾀꿉이 이겨낸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싸워 힘을 줄이면 안된다. 물론 전쟁을 일으켜 대규모 살상을 해서도 안된다. 전쟁



에서 죽는 것은 대부분 남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끼고 도와주며 협동해서 살아가야 한다.

나는 이렇게 다섯 가지 방책을 내놓았다. 이제는 실행하여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이제는 여자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여자에 대해 면밀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여자의 신체부터 정신까지)

여자가 무엇이나? 그렇게 물으면 남자의 일부분이며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여자는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밤에 도와주는 사람이다. 무엇을 도와주는지는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이런 체계는 조선 시대에 절정기를 맞았다. 여자는 감히 우리에게 얼굴을 들 수 없었으며 식사를 할 때도 다른 상이나 부뚜막에서 먹었다. 밤에는 여러 여자와 일을 치를 수 있었으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핑계로 내쫓을 수도 있었다. 이런 여자의 상황을 한자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奴(종노)자가 그것이다. 어원을 따지면 여자에서 출발함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여자의 바른 지위를 알 수 있다. 이런 시대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전통을 이어 받아 남성상위시대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른들이 "신혼에 꼭 잡지 못하면 평생을 잡혀 산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을 종종 들을 수 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여자를 신혼에 길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데로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옛날 영어 교과서에서도 "You should try to make the most of three years."라고 나와 있다. 우리는 신혼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나머지 인생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이 제 2의 인생의 기로인 것이다. 물론 제 1의 기로는 고등학교 고3생활이다. 제1의 기로에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2의 기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자, 우리 남성들이여 항상 앞서 나가라. 그러면 무엇이든 해 낼 수 있다. 인류 문명의 주체는 우리 남성임을 명심하라.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다.

이 글을 읽고 글쓴이가 너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거나 미친놈이라 생각할 지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생각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코믹 위주의 글을 쓴 것이지 내 사상이나 이념을 나타낸 것은 절대 아니다. 나도 십대(teen-ager) 신세대이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며 여성들과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성분들에게 심심한 양해를 구한다.

## 문화 행사 안내

### ◁ 뮤지컬 ▷

#### 지하철 1호선

일시 : 무기한

장소 : 학전그린

내용 : 오후 7시 30분, 토·일 오후 3시·7시(월 쉼).

볼커 루드비히 원작, 김민기

번역·연출, 설경구·장현성등.

연락처 : 학전 763-8233

#### 코러스 라인

일시 : 12월 8일 까지

장소 : 인켈아트홀

내용 : 오후 4시·7시 30분, 일 오후 3시·6시 30분.

니컬러스 덴트·제임스 키크우드 원작, 문석봉 번안·연출,

그외 정현·박우열 등.

연락처 : 광장 3672-1391

####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구?

일시 : 무기한

장소 : 하늘땅 2

내용 : 4시·7시 30분, 월쉼. 최현목 작품, 연출 강연걸,

그외 이원승·박영숙 등.

연락처 : 하늘땅 747-2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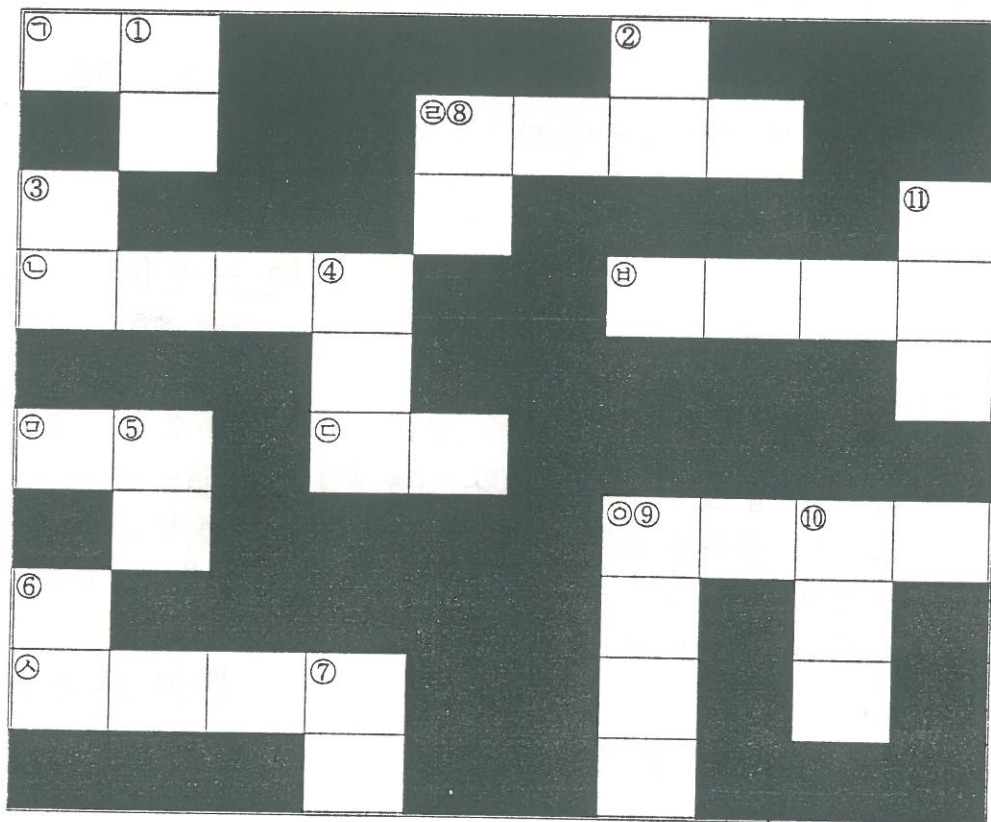






# 낱말 풀이

모두 함께 풀어 봐요.



## 가로 열쇠

- ㉠ 요즘 경제 불황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이 행하는 방안
- ㉡ 우유, 양유 따위를 유산 발효에 의해 응고시킨 영양품
- ㉢ 주름을 잡아 물결모양으로 만든 가장자리 장식
- ㉣ 염상섭의 소설 중 하나. ○○○○ 청개구리
- ㉤ 군인이 병영을 빠져 도망함
- ㉥ 며칠전 화제의 뮤지컬로 막을 내림. 송채환, 남경주등이 출연한 영화로도 제작됨
- ㉦ 결혼 초의 달콤한 동안의 여행 (=신혼여행)
- ㉧ 만사는 반드시 정리 ( 正理 )로 돌아간다는 사자 성어

## 세로 열쇠

- ① 본디의 형, 이전의 상태
- ② (야구에서) 평범한 실책
- ③ 가는 허리. 허리가 가늘고 날씬한 여자
- ④ 유럽에 알려진 목판 인쇄술. 최초 형식의 하나로서 아마도 종이에 인쇄한 가장 최초의 형식
- ⑤ 옛날 부여국에서 추수를 감사하여 선달에 제사 지내던 의식
- ⑥ 빈틈없이 자세하고 세밀함
- ⑦ 대문간에 붙어있는 방. 대문 양쪽에 벌여 있는 하인들의 방
- ⑧ 기입의 최초에 기재되어 있는 어나귀 배열 순위를 결정하거나 검색의 수단이 되는 어
- ⑨ 사기 그릇의 깨진 조각
- ⑩ 배우이경영의 영화감독 데뷔작. 오랜만에 선보이는 무협영화
- ⑪ 개과의 짐승. 산에서 떼지어 삼. 이리와 비슷한데 주둥이와 사지는 짧고 귀는 곱으며 꼬리를 늘어 뜨림

[정답]은 다음장에...



㉠감	①원				②범				
	형			㉡표	본	실	의		
				⑧					
③세				목					⑪승
㉢요	쿠	르	④트		㉣고	래	사	냥	
			럼						이
㉤탈	⑤영		㉥프	릴					
	고				㉦사	필	⑩귀	정	
					⑨				
⑥요					금		천		
㉧밀	월	여	⑦행		파		도		
			랑		리				

감사합니다...

문헌정보학과 주소록

1학년

- 강유미 0345)405-1850 012-936-1850 선부동 주공A 1209동 1306호  
 권혜민 716-7671 015-982-7671 용산구 청파1가 12번지 1호  
 금교순 214-3894 015-185-4453 동대문구 휘경2동 16-45호  
 금성은 0331)34-1769 015-912-0814 수원 권선구 권선동 두산 동아A 107동 508  
 김선희 374-4509 015-252-5887 은평구 응암2동 242-284  
 김성준 847-8771 영등포구 신길7동 2299번지  
 김성화 032)466-7683 015-171-3703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주공A 211동 205  
 김정숙 525-5910 015-901-1595 동작구 사당5동 249-16호 12통 6반  
 나현신 372-8908 015-333-2037 서대문구 홍은3동 금호빌라A동 110호  
 남재락 272-6720 012-909-4696 중구 장충2가 193-163 11/6 100-192  
 노은미 834-6950 015-295-5917 영등포구 도림1동 141-111  
 박소영 908-1086 012-942-1086 도봉구 창동 궁전빌라 202호  
 박아림 356-4065 015-956-4065 은평구 갈현1동 281-103  
 박윤경 226-0183 012-888-9614 일원본동 수서12단지 극동샐터A105동 1202  
 박지영 412-5221 송파구 잠실5동 주공A 504-802  
 박혜영 577-8822 015-162-9987 서초구 양재동 2-31 상미빌라 102호  
 송윤재 416-5186 012-867-8228 송파구 송파1동 호수입광A 102동 801호  
 오차남 0351)873-4374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73-4호  
 오효선 416-1805 잠실3동 주공A 310동 304호 138-223  
 유승민 874-3223  
 유현진 644-8141 015-171-8142 양천구 목동 903 목동A 305동 705호  
 윤선영 491-4275 015-955-4275 중랑구 면목6동 405-4호 15통7반 4층 401  
 윤현정 032)521-4957 015-984-1093 인천 부평구 삼정동 186-286호 22/5  
 이상은 676-9666 012-287-5580 영등포구 당산동4가 32-79호 13/2  
 이선형 763-1207 015-983-1208 종로구 재동 46-7호 6/1  
 이승진a 238-6355 015-243-0962 중구 약수동 349-123 성지빌라 403호  
 이승진b 3471-2023 015-120-7525 사당1동 1007-27호  
 이영선 359-7185 015-165-7185 은평구 구산동 2-22호  
 이재도 0346)594-3496 015-175-1358  
 이정현 906-1947 강북구 수유6동 305-13  
 이정화 948-8093 012-849-8093 노원구 공릉동 현대A 3동 405호  
 이지연 684-7136 015-965-3451 경기 광명시 철산3동 철산주공A 410동 101  
 이하나 032)504-5809 012-959-4286 인천 부평구 갈산2동 태화A 7동 1105호  
 임주열 684-2760 구로구 고척1동 97-3호 삼명A A동 209호  
 임진숙 586-4949 015-959-8649 동작구 사당5동 249-16호 12/6  
 장인남 0344)975-0533 015-908-5411 경기 고양시 구산동 619-17  
 정연숙 921-8892 015-188-1613 성북구 돈암동 한진A 211-1203  
 정후정 0342)212-9182 015-211-1227 성남 분당구 까치마을 청솔빌라 105동 201  
 조옥성 3491-6679 012-838-2468 도봉구 방학4동 청구A 104동 1309호  
 차수진 968-6212 012-918-6215 동대문구 이문3동 246-20



2학년

곽정민 496-3921 015-151-5476 중량구 상봉1동 190-129 12/7  
 김영현 0346)68-4473 015-363-4473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6리 반도 나동 104  
 김윤정 536-7084 012-853-8385 서초구 잠원동 한신19차A 330동 1003호  
 김지훈 945-3993 강북구 미아3동 302-301  
 김하나 396-6912 012-851-6912  
 김해영 917-8366 012-872-8366 성북구 장위2동 238-377 32/1  
 노진선 0346)66-7212 012-905-2506 경기 남양주시 진전읍 팔야리 781  
 박상민 591-5094 015-161-0864 동작구 사당동 64-235 17/1  
 박상욱 439-0229 012-804-4229 중량구 면목4동 72-6 면목A 4동 1407호  
 박영혜 0343)23-4512 015-301-4866 경기 안양시 관양동 1422 명지타운 B동 401  
 박유미 445-5708 강남구 개포2동 개포주공A 413동 510호  
 박은경 715-9686 015-601-1006 마포구 노고산동 4-21  
 박은정 418-6311 송파구 석촌동 232-7  
 백현영 212-6645 015-903-2273 동대문구 답십리 1동 198-4  
 서지혜 713-8266 012-838-8450 용산구 청파동1가 116-7  
 소현 383-4242 012-853-7542 은평구 용암1동 2-24호 2/10  
 손길영 0342)711-0862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현A 103동802  
 신성기 798-0726 015-909-9184 용산구 보광동 238-22  
 심태은 459-3750 015-229-3750 강남구 일원본동 목련A 109동 705호  
 안경선 234-0701 015-917-0709 동대문구 신설동 94-35  
 안수경 478-6273 012-864-6273 강동구 천호1동 83-22 26/3  
 윤혜영 334-3407 015-930-3407 마포구 성산1동 25-3  
 이유헌 032)421-2356 인천 부평구 삼성2동 317-102 44/5  
 이종구 0344)904-5416 경기 고양시 마두1동 백아 극동A 209동401  
 이주연 543-6767 012-341-8767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78-802  
 임은정 3672-1704 성북구 삼선2가 390-3 4/5  
 정재욱 032)429-3837 012-849-4837 인천 남동구 간석1동 금호A 5동 411호  
 정재희 423-4265 송파구 송파2동 성원A 3-306호  
 정혜련 595-3180 서초구 방배4동 862-19 우성 빌라 102호  
 정혜영 0345)407-4858 경기 안산시 시동 1155-6  
 한수현 588-6289 012-827-6289 서초구 방배2동 2732-13 택지번호 48호  
 김시내 0343)85-4169 경기 안양시 동안 비산3동 삼호A 18동1108  
 박인혜 032)862-4747 인천 남구 도화1동 597번지 9/515  
 안현욱 903-5565 강북구 번1동 471-32  
 이준영 542-9443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A 82-501호  
 전영주 400-7549 015-217-4691 송파구 가락2동 극동A 4-903호  
 조향주 883-3690 015-105-4029 관악구 신림본동 409-278 삼호빌라 101호  
 주수연 593-7225 012-841-7225 서초구 방배4동 847-4 5/5  
 문태현 358-7129 012-917-0780 은평구 불광2동 344-38  
 이민재 897-8247 경기 광명시 하안1동 단독 필지 330

3학년

김리나 736-4833 012-862-4833 종로구 옥인동 47-331 9/7  
 김미영 394-4026 012-847-9425 서대문구 홍재1동 360-5 22/2  
 김선주 420-6481 015-916-8977 송파구 잠실 주공A 280동404호  
 김현정 324-3205 마포구 연암동 564-21  
 남한선 235-5206 012-830-5206 중구 신당3동 366-300 24/1  
 박세경 929-7989 012-237-7981 성북구 돈암동 한진A 202동406호  
 박주리 447-0493 015-102-5168 광진구 자양1동 228-72  
 박현아 575-2843 015-272-2843 서초구 양재동 9-24  
 서인화 226-5060 강남구 일원동 659-2  
 신희승 232-5423 015-219-5423 중구 신당2동 401-8  
 안수진 566-2931 012-824-5583 강남구 역삼동 684-4  
 유희정 244-2523 015-300-3041 동대문구 답십리2동 36-24 17/2  
 이민정 357-9211 012-872-9221 은평구 녹번동 21-320 성덕빌라A 101  
 이선행 876-3245 012-810-9085 관악구 심림9동 251-391 14/4  
 이화은 0343)43-5482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773-3 24/2  
 이효진 354-2495 012-936-9431 은평구 대조동 165-30 33/5  
 장은영 948-8134 노원구 중계동 주공A 101-1370  
 전선미 914-9653 012-818-9653 성북구 정릉4동 260-121 12/5  
 전윤정 483-3168 015-131-3168 강동구 성내1동 322-6 3/6  
 조수완 599-3345 012-806-9859 서초구 반포2동 한신3차A 24-1004  
 조형진 359-6946 015-255-6946 은평구 용암1동39-380 주진빌라 D-306  
 채희선 601-2482 012-347-4048 강서구 화곡3동 1345-6  
 최재연 913-3807 015-151-3807 성북구 하월곡4동 57-4 2/8  
 풍혜영 032)662-4831 015-863-4831 경기 부천시 원미동 189-44 7/7  
 한서정 032)656-9169 015-980-9169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우성A 6동701  
 함성미 906-0351 015-321-8769 도봉구 쌍문2동 81-195 16/1  
 현승수 423-7452 012-252-8367 송파구 잠실4동 진주A 6동707  
 황혜전 0343)43-4998 015-151-6343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146-2 초원빌라 120  
 김문정 259-4059 015-136-0509 은평구 역촌1동 25-89호  
 김지연 358-6635 015-255-6635 은평구 역촌2동 61-34 대우빌라 101호  
 박상국 924-0708 012-286-6731 돈암2동 616-100 동소문 한진A 211-103  
 신기은 868-2056 015-383-0697 구로1동 중앙 하이츠A 2-1403  
 오혜정 689-8514 012-876-2871  
 장경오 762-3658 012-849-4493 종로구 명륜동2가 115번지 2층  
 한순원 421-7722 송파구 잠실7동 아시아 선수촌A 13-59  
 유미정 742-1905 015-156-1906 성북구 성북2동 주암A 204호  
 김일환 912-9459 012-843-1320 성북구 정릉4동 254-125 19/4  
 이홍식 813-0841 015-234-0841 동작구 흑석3동 61-25  
 김병수0344)976-2679 015-450-2679 고양시 일산동 517-11  
 이규동 032)875-1965 인천 남구 주안2동 550-9



4학년

곽동연 232-2503 012-886-3289 성동구 금호3가 662번지 지층5/4  
 김미전 925-2427 성북구 보문동3가 225-62 13/4  
 김선영 418-5489 015-257-6650 송파구 잠실5동 주공A 515동 804호  
 김선욱 883-8132 영등포구 신길6동 3897-13 10/1  
 김수진 382-3258 015-308-1013 은평구 응암1동 96-23 현대주택 가동 205호  
 김진영 416-6928 송파구 잠실5동 주공A 509-102  
 김혜영 357-7100 012-861-7101 은평구 불광1동 272-49  
 남무정 765-3193 015-145-0412 종로구 가화동 89-1  
 남안숙 032)434-2397 인천 남동구 간석3동 47-4 삼우빌라 나-301  
 류경선 874-9680 015-959-9680 관악구 봉천1동 1500 해바라기A 1동 405호  
 박균숙 911-9419 성북구 정릉4동 815-16 태청 빌라 A동 201  
 박민 928-1795 성북구 동선동5가 70-29 2/7  
 박윤미 981-6039 015-129-6030 성북구 길음3동 1116-2 26/11  
 박혜영 937-9249 중계본동 9-1블럭 대림 벽산A 104-1201  
 방승준 764-0481 015-032-0481 종로구 동승동 129-28  
 서원영 434-5331 중랑구 망우1동 경남A 3동405호  
 소정선 986-8004 012-813-6146 강북구 번3동 한양A 103-802  
 현경미 442-1184 012-884-9912 강북구 암사4동 453-25  
 송승하 935-8970 노원구 상계9동 보람A 109-1380  
 송하신 699-1285 015-159-0428 강서구 화곡1동 425-22  
 심지영 889-1555 015-153-9429 관악구 신림9동 1554-8 16/4  
 심혜영 664-7786 015-127-2901 강서구 방화1동 195 건우3차A 7-501  
 안주영 760-4181 012-373-4196 한성대학교 총학생회  
 오정선 595-1135 015-135-2135 동작구 사당3동 175-14  
 오현정(0348)945-9546 015-288-9546 경기도 광주시 탄현면 갈현1리 150  
 오현주 417-7315 015-992-2312 강동구 둔촌2동 108-105  
 유옥진 690-0034 양천구 신월4동 514-8 미립302  
 이내연 413-6399 송파구 잠실5동 주공A 524-301  
 이명희(0344)901-2597 012-821-2597 고양시 일산구 마두1동 쌍용A 509-1201  
 이승민 032)542-1618 인천 계양구 계산2동 898-5 한우리A 3-501  
 이재연 572-3893 012-877-9785 강남구 개포동 주공A 230-306  
 이정화 936-9517 동대문구 청량2동 205-401 11/10  
 임유리 032)684-108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3-7  
 임은하 0344)916-1020 일산3동 1058번지 후곡 럭키3차A 907-102  
 장경옥 0341)82-0418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칠성A 나동 205호  
 전해원 434-6309 015-247-6349 동대문구 청량1동 마주A 2-1108  
 황대영 463-1860 012-350-7456 성동구 성수1가 2동 13-361

## 학술 편지부원들

- 91 이홍식 김일환  
 92 김병수  
 93 남안숙  
 박윤미  
 오현주  
 전예원  
 황대영  
 94 김선주  
 문태현  
 유확정  
 이민정  
 전윤정  
 최재연  
 95 김영현  
 박영혜  
 박은경  
 손길영  
 신성기  
 심태은  
 이상욱  
 96 김성화  
 노은미  
 오효선  
 이선형  
 임주철



